

## 뜻밖의 수확! - 지혜 있는 자만 깨달을 수 있는 일곱 머리(1)

- 읽을 말씀 계 1:1-3, 17:3-4, 16
- 주요 내용

지난 시간에는 다니엘 9장 27절을 인용한 마태복음 24장 전반부가 이중예언임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오늘은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짐승의 일곱 머리”의 의미 중 일곱 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일곱 머리는 일곱 산이라는 장소 즉 로마를 가리킨다.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은 로마입니다. 실제로 로마는 일곱 개의 언덕에 자리잡은 부락들로 시작되었으며, 일곱 언덕의 도시로 발달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산을 로마로 해석하면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17:9)를 두고, ‘일곱 산이 로마라면 여자가 로마인데 어떻게 그 위에 앉아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일곱 산 위에 건설되었으므로 로마를 뜻하는 여자가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또한, 7절의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 라는 표현에 의하면, 여자는 로마의 영토인 “일곱 산” 뿐 아니라 로마의 지도자인 “일곱 왕” 위에 앉아 그것들을 다스립니다. 여자가 일곱 산 위에 앉아 있다는 것은 과거의 로마에 대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일곱 왕은 과거 로마 황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산에 앉아 있는 여자는 그 여자가 과거의 로마에 속한 나라들과 황제들을 다스리고 조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일곱 산을 로마로 보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곱 머리가 일곱 산 즉 로마를 가리킨다는 것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는 로마 황제들을 통한 박해가 바로 대환난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계시록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황제들의 박해에 절대 굴복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라고 경고하고 격려하는 책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종말장인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계시록이라는 종말에 대한 계시를 주신 분도 예수님입니다(계 1:1). 이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전반부처럼 계시록도 어떤 것들은 이중예언입니다. 또, 마태복음

24장은 예루살렘 함락 전에 계시가 주어지고 그 후 기록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멸망’ 과 ‘적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난’ 에 대한 이중예언으로 선포되었지만, 계시록은 기록뿐 아니라 계시 자체가 예루살렘 함락 후에 주어졌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로마 황제들의 박해’ 와 ‘종말에 적그리스도에 의한 대환난’ 을 이중예언으로 그렸습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일곱 산이 로마를 뜻한다’ 는 것과 ‘바벨론 역시 로마를 뜻하는 은어’ 라는 것을 대부분 알고 있었습니다. “**큰 성 바벨론**”(계 14:8)은 다니엘 4장 30절에서 가져온 표현으로, 로마를 뜻합니다. 계시록 전체를 통해 로마는 바벨론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로마제국을 바벨론에 비유하는 이유는 두 나라가 유대 땅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으며, 정복한 나라들로 우상숭배 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바벨론은 로마를 뜻하는 것이 확실하고, 초대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학자들은 일곱 산을 로마로 이해하면 로마가 중복이 된다고 지적합니다. 음녀는 곧 큰 성 바벨론 즉 로마입니다(계 17:5). 그런데 “일곱 산” 은 이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일곱 머리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로마가 로마를 타고 있느냐?’ 라는 모순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모순을 피하기 위해, 일곱 머리를 다소 상징적인 일곱 산으로(대통령을 정상으로 부르는 것처럼) 그 다음 더 확실하게 일곱 왕으로 해석한 것으로 봅니다. 즉 둘 다 왕으로 봅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라면 그냥 일곱 왕이라고 하지 왜 일곱 산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더구나 이것은 천사의 해석인데 왜 ‘머리’ 라는 상징을 해석하면서 ‘산’ 이라는 상징을 다시 쓴 것일까요? 그것은 매우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짐승의 일곱 머리 즉 일곱 산은 적그리스도가 로마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일곱 머리 즉 일곱 왕은 로마의 황제들이 미래의 적그리스도의 역할을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일곱 산은 과거의 로마제국을 의미하고, 짐승을 탄 여자 즉 바벨론은 로마를 뜻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의미합니다. 일곱 산은 과거에, 바벨론은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듯 공통점뿐 아니라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더라도 모순이 아닙니다. 일곱 산을 로마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곱 산은 로마가 맞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곱 산이나 바벨론이 로마를 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읽을 때 로마 황제들을 통해 이미 겪었고, 겪고 있고,

앞으로 겪게 될 박해를 이겨야 한다는 가르침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은 대환난에 대해 쓴 것이라도 이중예언이기 때문에 초대 교회 성도들에게 사활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요한계시록은 그 시대를 위한 책이며, 동시에 마지막 시대를 위한 책이기도 합니다. 즉 종말에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는 대환난에서 배교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라는 심각한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한편, 바벨론은 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음녀” 로, 18장에서는 “큰 성” 으로 묘사됩니다. 요한은 새 예루살렘성을 성으로도 신부로도 표현했습니다(21장). 바벨론도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큰 음녀” 와 “큰 성” 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시록 17장을 바벨론(여자)이 로마와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뜻한다고 생각하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의미에 대해서도 견해가 각각입니다. 다수가 저처럼 로마로 해석하지만 개중에는 예루살렘이라고 해석하는 이도 있고, 또 사람들 안에 있는 악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계시록 17장 3절에는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라는 표현이 나오고, 9절의 여자가 앉은 자세는 보좌에 좌정해 있는 것을 연상케 함으로 여자가 짐승을 다스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여자(로마와 적그리스도제국)가 로마 황제와 적그리스도를 다스리지?’ 라는 의문이 생겨납니다.

바벨론을 뜻하는 여자가 짐승을 탄 것(다스리는 것)이 이상해 보이지만, 여자의 속성에 주의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여자의 속성은 교만, 사치, 죄, 우상숭배 및 주술, 하나님과 성도들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17:3-6, 18:4-7, 24). 여자는 짐승을 통해 원하는 것들을 얻고 원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짐승을 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결국 문제는 로마 황제나 적그리스도 개인이 아닙니다. 대중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대통령이 아니라 이기적이고, 음란하고, 탐욕스럽고, 하나님과 기독교에 대한 적개심으로 가득한 국민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자를 로마나 적그리스도의 제국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한 걸림돌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6절에서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하는데, 여자가 로마나 적그리스도의 제국이라면 왜 짐승과 열 뿔이 이렇게 하는가? 라는 의문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한수 교수님은 바벨론이 로마제국을 가리킨다는 해석은 무너졌다고 하지만, 데이비드 아우내는 “음녀는 도

시를 가리키기 때문에 '망하게 하고'(사람들이 살 수 없게 만들고)라는 표현은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둘 중 후자가 옳습니다. 18장에 바벨론의 파괴와 멸망이 자세히 묘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열 뿔로 상징되는 열 왕과 짐승이 음녀를 대하는 것을 보면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데, 세 가지 은유(별거벗기고, 살을 먹고, 불로 사르는 것)는 심판에 대한 강력한 상징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하고 어리석은 국민들의 그릇된 선택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기독교를 박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며 스스로를 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늦기 전에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교회와 목사들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계시록 18장 2-5절을 주목하면 바벨론은 “큰 성”, “귀신의 처소”,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으로 불리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또 이 구절에서 “그”는 바벨론인데, 죄나 불의와 동의어가 아닙니다. “그의 죄”, “그의 불의” 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큰 성은 악이 아니라 로마와 적그리스도의 제국을 가리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성을 1. 로마 2. 로마 사람들 3. 로마 사람들 속에 있는 악 이 세 가지를 통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성은 단순히 성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 안의 사람들과 사람들 속에 있는 악을 포함합니다. 이점에 주의하면 3절에서 여자가 짐승을 타고 있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도, 적그리스도도 결국 사람들 속에 있는 악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들이고 악에게 지배를 받는 인물들이기 때문입니다.

## ● 나눔과 적용

적그리스도는 결국 사람들 속에 있는 악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이고, 이 악은 결국 나라를 망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해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치 못한 악은 없는지 돌아보고, 내 안에 더러운 악과 이기심을 뿌리 뽑기 위해 결단하고 실천하고 있는 것을 나누어 봅시다.